

## 2015년 9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5.9.22(화) 13:00~14:30

### ■ 주요 의견 내용

#### ▲ 심층적 확보하고 정확한 보도로 신뢰성 제고해야

- 2일 '뉴스현장14' '박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특별오찬. 중국 각별한 배려' 기사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무엇인지? 기사내용에 설명이 있었다라면 기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임(성낙용 위원)
- 7일 '뉴스현장13' 승선·구명조끼 관리 허술..안전 불감증 여전 기사는 세월호의 축소판으로 안전 불감증에서 일어난 사고로 안타까움을 더했음. 후속기사로 특수구조대가 재난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내용.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두절 원인 등 재난통신망 구축사업의 문제점. 승선 시스템 개선 등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내놓은 각종 안전대책을 점검하는 기사가 이어졌으면 좋았을 것(성낙용 위원)
- 20일 부동산 관련 내용 중 강남큰집을 팔고 작은집에 들어가면서 남는 금액으로 강북의 소형 집을 추가로 매입해 임대를 놓는 등 다운사이징 투자가 인기라는 내용이었으나 실제 쉬운 일이 아님. 매도시 양도세, 매입시 취득등록세, 집값 하락 우려, 임대공실 등을 감안할 때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임. 실제로 어려운 사안에 대해 좋은 면만 보여질 수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였음(이용우 위원)
- 18일 보도된 '회장님 약속은 허공에...아시아나 승무원들 손배소'라는 뉴스보도를 보면서 뉴스 제목과 보도 내용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음. 2년 전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활주로에 충돌했던 대형사고발생시 헌신적으로 승객구조에 나섰던 여승무원들이 회사와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금호아시아나가 최근 노사 문제 등 내부 문제로 많이 복잡하다는 내용이 길게 보도되면서 정작 여승무원들이 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어 시청자 입장에서 뉴스를 보면서 오히려 궁금해지는 상황이 연출됨(이용진, 이용우 위원)
- 20일 '단풍철 산악사고 급증'이라는 보도는 시의적으로 아주 적절한 보도였으나 아쉬운 점은 사고사례를 보도하고, 주의사항은 기자의 간단한 멘트로 대신했는데 전문가가 주의사항과 예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했다면 더욱 알찬 보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됨(이용진 위원)
- 18일 '시청자의 헌혈 300만명 넘지만 혈액 수입량 ↑...연간 670억원' 보도에서 헌혈자는 매년 늘어 나는데 헌혈 수입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원인이 없어 궁금

증을 남겨함. 시청자에게 단순 사실을 전달하기 보다는 원인을 함께 보도해야  
(김용주 위원)

- 어린이 성추행,가족간의 성추행, 몰카촬영 등 성범죄 사건이 너무 자주 보도되는데, 문제점이나 예방대책 등을 심층 취재하여, 성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춰 보도요망(김용주 위원)
- 19일 '기업비사 28회' 롯데 그룹 형제의 난 내용에서 형제의 난이 사실상 끝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는 점에서, 과연 시의성 측면에서 적절했는지 시사보도에서는 말 그대로 시의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시의적절한 때에 보도되도록 기획해 주시기 바람(최진녕 위원)
- 22일 미국 F-35핵심 기술 이전 거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차질 내용에서 전투기 도입 문제와 관련된 문제는 보도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임. 다만, 단순한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읽는 정도를 넘어서 미국 측의 태도에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대안까지 제시했다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심도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최진녕 위원)
- 21일 '뉴스포커스' 가장 오래가는 스마트폰 밧데리는 아이폰6다 라는 내용을 조사기관의 경과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음. 조사내용 인용할 때에는 조사기관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기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함(김연화 부위원장)
- 20일 추석선물 소득의양극화 현상 내용에서는 한 달간 매출액을 조사 분석한 결과 작년대비 20퍼센트 대비 증가했다고 보도했는데 전반적인 가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고가와 저가의 차이점을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함께 제공했으면 함(김연화 부위원장)
- 16일 재벌총수 일가의 미성년자녀 지분보유 내용은 대부분 부정적인 뉘앙스로 시청자들에게 비춰짐. 지분 보유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던지 불법적인 일어난 것이 아닌 정상적인 세금납부와 증여과정을 거쳤음에도 재벌총수라고 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으로 비춰지는 문제가 있었음(이용우 위원)
- 17일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쌓아놓은 현금이 아니다 라는 내용은 기업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임. 대표적인 기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문제를 바르게 보도했음. 사내유보금은 가지고 있는 현금뿐 아니라 각종 설비투자 등을 포함하는데 사내유보금의 실체를 오해 없도록 바로잡아주어 적절했으며, 아쉬운 점은 결론에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투자금과 고용확대부분도 들어있다고 하면서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야 이런 오해를 풀 수 있다고 앞뒤가 안 맞게 보도해(이용우 위원)
- 13일에 방송된 '기업비사'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얘기는 미화한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함. 기업(또는 기업을 일군 인물)의 얘기를 다루다보면 어느 정도 미화할 수 있지만, 지나치면 프로그램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최현철 위원)

### ▲ 외래어, 부적합 표현 및 자막, 화면구성 개선필요

- 프로그램 명 및 뉴스제목에 외래어가 지나치게 많음. 과거에는 방송에서 외래어를 사용하지 못했으나 정부정책에서 에서조차 뉴스테이~와 같은 외래어를 나발하고 있음. 이번 한글날을 즈음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으면 함(강대인 위원장)
- 연합뉴스 실시간 스크롤에서도 불필요한 한자 사용 문제가 있음. 대부분의 용어는 한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인식을 할 수 있으며 약어를 사용할 시에도 지나치게 함축적의미를 사용해 내용전달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사람의 이름을 표현할 때에도 직함 없이 이름 세글자만 표현돼 있어 누구인지 내용 전달이 되지 않음(강대인 위원장)
- 22일 아침 첫 뉴스에서 제목기사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 기사가 내용에서는 세 번째로 소개돼 순서대로 나오지 않았음. 진행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음(강대인 위원장)
- 8월 29일 뉴스23에서 강남역 지하철 사고 현장을 다룬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혈흔으로 보이는 자국이 여전히 드러나며 전달됨. 9월 1일 '투나잇23'의 여성 샤워실 몰카 장면 역시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실루엣 등이 드러나서 선정적으로 보임(양승찬 위원)

### ▲ 프로그램 제작, 편성의견

- 국정감사 전반적인 브리핑이나 의원실의 보도 자료에 의한 보도, 그리고 그날그날의 이슈를 보도하고 있는 패턴도 무난하지만 국정감사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 이슈를 사전에 전달해주는 기획 보도가 있었다면 더욱 알찬 보도가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듦(이용진 위원)
- 14일 방송된 '라이브 투데이' 예비양 챔피언에 오른 리더 고의 얘기는 뉴스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양적인 면에서 좀 지나쳤다고 생각함. 또한 박인비 골프백 분실과 2일 후에 찾는 보도는 굳이 라이브투데이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함. 또한 16일 라이브투데이에서도 영화 얘기를 하면서 "유아인 전성시대"라는 자막까지 사용하면서 양적으로 길게 특정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음(최현철 위원)
- 어느 방송사든 단신은 비슷비슷하여 차별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단신으로는 다른 방송사와 경쟁하기 쉽지 않음. 물론 현재 여건상 기획보도의 양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다른 방송사와의 경쟁력 제고 하고 시청자로부터 좀 더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단신 중심의 뉴스 전달에서 벗어나 연합뉴스TV만의 색깔을 가진 기획보도의 양을 늘렸으면 좋겠음(최현철 위원)
- 정치권의 움직임이 특별히 없을 경우 사건, 사고 보도가 연속되는데 뉴스 영향력이 크지 않은 사건, 사고보도는 되도록 단신으로 처리하고 한 주간의 주요 뉴

스를 정리해 주는 부분에 더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음(양승찬 위원)

- 편성에 관한 문제 중에 경쟁사는 정시뉴스를 하고 있는데 비해 연합뉴스TV 주요뉴스의 시간은 정시가 아니므로 시청자들에게 정시뉴스의 인식이 없음. 편성 시간을 고민해보길 바람(강대인 위원장)
- 같은 뉴스의 중복편성이 많음. 긴급한 사건사고가 아는 기획된 기사의 경우 시간차 없이 이어서 반복소개가 되는 것은 성의가 없어 보일 수 있어 매시간 다른 뉴스를 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임(강대인 위원장)
- 5일, 생리학 분야를 시작으로 2015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임. 세계적으로 노벨상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아직 국내 수상자가 없어 대중의 관심이 떨어지는 편인데 이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노벨상'에 대한 의미와 후보로 거론되는 국내 과학자를 소개하는 등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만한 기획보도가 마련되면 좋겠음. 또한, 매년 노벨상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로이터통신에서는 수상자 후보자를 예측하여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보도를 준비하여 연합뉴스에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짐. 이러한 부분이 적극 검토되어 우리나라에도 과학 분야의 공신력 있는 언론보도가 가능해지길 바람(이현규 위원)

#### ▲ 긍정적인 평가, 앵커 관련 의견

- 14일 '고성국의 담담타타' 노사정 대타협, 노동개혁 합의 핵심 내용은? 에서 노사정 합의문의 핵심 내용인 일반해고 문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문제 등을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 좋았으며 또한 이와 관련한 여야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갈등 사항으로 예견되는 정리하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확대, 파견근로 확대 등도 짚어 주어 좋았음(성낙용 위원)
- 20일 보도중 현대기아차가 생산성은 낮은데 임금은 최고다. 우리기업 노조의 귀족화, 이기주의라는 내용은 기업에서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적절한 지적이 있었음(이용우 위원)
- 18일 문화재청의 '궁 스테이' 강행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보도와 함께 뉴스 리뷰 시간에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등 적극적인 보도를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 좋았음(이용진 위원)
- 20일 '명품리포트 맥 - 현장IN' 주차장이 위험하다...불안한 여성 운전자들 내용에서 최근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운전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문제점과 범죄예방 대안을 전문가들을 인터뷰하여 보도한 것은 아주 긍정적인 보도였음(김용주 위원)
- 8월 29일, 9월 5일, 12일, 19일 '하모니' 달려라! 의령 마지막편에서 중국 길림성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살고 있는 박해란씨가 남편과 사별한 후 초·중·고에 다니는 3남매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너무 쉽게 가정이 해체되는 요즘의 세태에 귀감이 되고 훈훈하고 좋은 프로임(김용주 위원)
- 10일 '뉴스현장14' 세계과학정상회의 개최... 의미는? 에서는 오는 10월, 한국에

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과학정상회의'에 대해 미래부 이석준 제1차관이 직접 현장 초대석이라는 코너에 출연하여 자세하고 쉽게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함. 파리의외의 국가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적인 행사로 아시아국 가운데 최초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이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딱딱한 이미지 때문에 관심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국민도 보다 쉽게 행사의 의미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생각함 (이헌규 위원)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배치된 메인 뉴스에서 볼 때 연합뉴스TV는 저녁 11시 뉴스를 종합 뉴스로 배치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현재 저녁 11시 뉴스의 여성 앵커의 경우 저녁 시간대 뉴스의 중간에 보조적 역할로 뉴스를 전달하기도 하고 다른 뉴스를 낮에 진행하고 있기도 함.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메인 앵커가 '뉴스리뷰' 프로그램에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전문성과 신뢰성의 차원에서 볼 때 좋은 선택이 아닌 것으로 보임. 저녁 11시 뉴스 앵커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담당을 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양승찬 위원)
- 여성 앵커의 복장과 관련하여 계절별로 신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2년 가까이 동일한 유형의 재킷과 블라우스를 착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복장 역시 전문성과 연결되니 새로운 투자를 고민했으면 좋겠음(양승찬 위원)

#### ▲ 기타 의견

- 여당대표 오픈프라이머리 관련 내용과 같은 새로 접하는 용어와 정보는 뉴스 자막 외에 홈페이지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김연화 부위원장)

- . (끝)